

간호학생의 분만관찰 경험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경숙¹, 오진환^{2*}

¹충주대학교 간호학과, ²주성대학 응급구조과

The observation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livery

Kyung Sook Lee¹ and Jin Hwan Oh^{2*}

¹Department of Nurs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Jus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구조화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며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모집단은 심층면담과 문헌고찰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5문항의 진술문이 선택되었다. P 표본은 분만실습에 대한 Q 표본을 분류하였다. 수집자료는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분만관찰 경험은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산모 공감형', 제2유형은 '돌봄 요구형'. 그리고 제3유형은 '미래 분만 유추형'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주관성 확인은 예비간호사로서,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subjective structure of observation experience toward delivery on nursing student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at gives information about the way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Q population was performed for analyzing through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From this, ultimately, a final Q sample of 35 statements was obtained. The P sample sorted the Q sample for observation experience toward deliver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ing using PC QUANL program, which revealed three distinctive types of delivery experience about nursing students. Type 1 is a sympathy towards delivery woman, type 2 is a requirement of care. And type 3 is a future of analogical inference of delivery type. In conclusion, it is needed not only to give high quality of nursing service but also to have a right job value based on proper understanding of patient. Also, it is recommended about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for making right view of value based on the three types of delivery experience.

Key Words : Nursing, Student, Delivery, Observ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분만은 산부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감격적이며 특별한 상황으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다. 이런 경험은 산부가 분만과정 내내 심한 고통의 과정을 거쳤기에 맛볼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땀의 결과이다. 그러기에 통증시작은 아기의 출산을 예측케 하는 증상이며 아기가 나오기를 도와주기 위한 모체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분만과정 중에 경험하는 통증은 뭐가 우리 몸이 잘못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통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부들은 분만 중의 통증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때문에 많은 산부들이 의학의 힘을 빌어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작용에 시달려야만 했다.

출산 시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경험으로

*교신저자 : 오진환(ohjh37@hanmail.net)

접수일 10년 11월 03일

수정일 (1차 10년 11월 23일, 2차 10년 12월 05일)

게재확정일 11년 03월 10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어느 일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는데[1-3] 이는 분만통증 자체가 상당히 개별적이면서도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분만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어느 한 측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심리적인 요인은 공통적인 문제라 보겠다. 때문에 분만통증은 산부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신과 출산에 따른 산모의 심리적 변화는 배우자와 태어난 아기 등 가족 전체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고통에 놓일 때 인간은 힘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기 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부들은 아직도 낯설은 분만실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의료진과 함께 분만 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부는 이중의 심적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분만과정에 산부의 옆에 누군가가 함께 참여하여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준다면 산부는 힘든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3,5,6]. 이러한 가족의 분만참여는 어느 누구보다 산부에게 가장 훌륭한 지원이내[7]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간호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데 특히 학교 외에서 행해지는 실습은 간호 현장에서 실습 대상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간호사들의 간호업무 현장을 보면서 간접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중 간호학생들의 분만실 실습의 주된 내용은 분만을 비롯한 고위험 임부와 분만 산부의 간호[8]이다. 더불어 부모됨의 전환기에 놓여있는[9]산부의 간호과정에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상황들은 간호학생들에게 미래의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의식확장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기초간호기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을 강화하고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하나이다[10]. 이 과정에서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때 교육자는 학습경험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긍정적인 간호경험을 한 학생들은 미래에 간호실무자로서 간호현장에 있게 될 때 대상자 중심의 간호제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분만실 실습을 통해 간호학생은 산부의 힘든 분만과정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분만실 실습경험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내재화된다면 미래에 간호현장에서 산부중심의 간호를 잘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같은 여성으로서 장래에 본인의 분만경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어 이들의 분만 관찰 경험은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병원분만이 주류를 이루면서 분만과정은 산부들의 의

사와 무관하게 의료적인 시술을 많이 적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부와 같은 여성인 간호학생들은 출산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경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어떤 내적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의 질적연구[11-13]가 있을 뿐이고 Q 방법을 이용한 분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간접 분만경험을 통한 분만관찰 경험의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분만 관찰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간호학생의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한다.
- 2) 간호학생의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구조화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및 설계

2.1 Q 모집단 및 표본의 구성과 분포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구조적 유형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분만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이해를 하고자 Q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Q 방법론은 개별 인간이 가지는 주관성의 세계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하는데, 개인의 주관성이란 특정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느낌이나 감정, 태도 등으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대신 응답자 스스로 그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14].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목적과 취지를 학생들에게 설명 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었다.

Q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면접(interview)에 의존하는데[14], 본 연구에서의 Q 모집단은 분만실 실습에 처음으로 참여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로, 분만실 실습 경험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문헌고찰은 자연분만과 실습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이중 관련 진술문들을 최대한 수집한 후 수집된 진술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총 75문항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표 1]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진술문
1. 분만은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
2. 나를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고 고맙다.
3.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올 뻔 했다.
4. 의료진은 산부의 정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5. 산모를 다그치는 의료진의 태도가 불쾌하다.
6. 출산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산모는 환자가 아니다.
7. 산모를 배려하는 분만이 절실하다.
8. 산모는 단지 처치의 대상일 뿐이다.
9. 출산의 순간은 경이롭다.
10. 힘든 고통을 견뎌내는 산모는 존경스럽다.
11. 애 낳기가 무섭다.
12. 산모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 같다.
13. 회음절개 장면이 끔찍하여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
14. 갓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쁘고 귀엽다.
15. 출산은 고통이 따르지만 아름답다.
16. 여자로서 좋은 간접경험이다.
17. 고통 중에 산모는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18.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산모는 가장 행복해 보인다.
19. 아기는 의료진에 의해 끌려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20. 의료진은 분만을 빨리 끝내려는 느낌이 든다.
21. 회음절개 중 가위질 소리는 아직도 귀에 선하다.
22. 적은 분만건수는 낮은 출산을 실감케 한다.
23. 엄마와 아기를 떼어놓는 것에 실망이다.
24. 분만에 대한 간접경험은 미래의 나의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5. 엄마의 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6. 출산자세는 수치스러울 것 같다.
27. 분만이 생각보다 빨라 놀라웠다.
28. 여성의 위대함이 느껴진다.
29.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30. 무표정하고 틀에 박힌 시술에 화가 난다.
31. 나도 분만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32. 분만 중에 가족의 참여는 산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 같다.
33. 진통실에 있는 산모는 외로워 보인다.
34. 산모 내진 시 눈을 어디에 뒤편할 지 모르겠다.
35.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아름다워 눈물 날 뻔 했다.

구성된 75문항의 Q 모집단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유사한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으며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의 타당성과 의미의 명확성 측면을, 그리고 연구 비참여 학

생을 대상으로 진술문의 이해도 측면에 있어서 확인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만실습 경험에 대한 Q 표본 총 35문항이 결정되었다[표 1].

2.2 P 표본(P-Sample)의 선정

본 연구의 P표본은 C대학교와 S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분만실 실습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37명으로 구성되었다[표 2].

[표 2] 유형별 P표본의 구성 및 인자가중치 (N=37)

유형	ID	인자 가중치	종교	가족 내 위치	입학동기	희망 진로	간호 관심영역	전공 만족도
I (N=20)	1	1.1341	유	막내	봉사외지	의료선교	성인	매우 만족
	4	.4450	유	막내	적성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6	.7091	유	막내	취업	임상간호사	모성	약간 만족
	7	.6402	무	막내	권유	임상간호사	모성	약간 만족
	8	1.0929	유	막내	적성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11	.7487	유	첫째	권유	보건소	정성	약간 만족
	15	1.2160	무	첫째	취업	임상간호사	모성	약간 만족
	16	1.2920	유	첫째	취업	임상간호사	아동	약간 만족
	20	.7854	유	첫째	적성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21	1.0035	무	첫째	적성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22	.9493	무	막내	적성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24	1.4394	무	첫째	취업	임상간호사	모성	보통
	25	.9138	유	막내	봉사외지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26	.6430	무	막내	적성	임상간호사	성인	매우 만족
	27	1.0963	유	첫째	적성	임상간호사	성인	매우 만족
	29	1.8711	무	첫째	취업	학교보건	성인	보통
	31	1.0527	유	첫째	취업	임상간호사	아동	약간 만족
	32	.9701	무	첫째	취업	임상간호사	성인	매우 만족
33	1.1943	유	첫째	취업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36	.6208	유	첫째	적성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II (N=6)	18	.4706	무	막내	권유	간호행정	성인	약간 만족
	23	.2408	유	막내	취업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30	.5984	무	첫째	권유	의무실	성인	약간 만족
	34	.7777	유	세째	적성	임상간호사	모성	매우 만족

III (N=11)	35	1.3147	유	첫째	권유	임상간호사	여성	매우 만족
	37	1.1070	유	첫째	취업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2	1.7102	유	막내	취업	보건소	지역사회	약간 만족
	3	1.3651	무	첫째	취업	임상간호사	여성	약간 만족
	5	1.0701	무	첫째	적성	간호교육	정신	약간 만족
	9	.6285	유	막내	적성	임상간호사	노인	매우 만족
	10	1.6170	유	첫째	적성	임상간호사	여성	매우 만족
	12	.5563	무	막내	취업	임상간호사	아동	약간 만족
	13	.8313	무	첫째	적성	임상간호사	여성	약간 만족
	14	.5287	무	첫째	취업	보건소	정신	보통
	17	.7120	유	첫째	적성	임상간호사	정신	매우 만족
	19	.8621	무	첫째	권유	임상간호사	여성	약간 만족
	28	.4104	유	첫째	권유	임상간호사	성인	약간 만족

2.3 Q 분류과정과 방법

본 연구에서의 Q 분류과정은 대상자가 35개의 진술문이 적힌 Q 카드를 먼저 읽고 난 후 인식정도에 따라 동의(+), 중립(0), 비동의(-)의 세 그룹으로 우선 분류하게 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이 적힌 카드부터 Q 분포표의 오른쪽 바깥(+3)인 ‘매우 그렇다’에서 안쪽 중립부분(0)에 배열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강하게 비동의하는 진술문을 왼쪽 바깥(-3)인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안쪽 중립(0)부분에 배열하도록 하였다. 즉, 7점 척도상에 강제 정규분포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양 극단에 놓여진 강한 동의와 비동의에 대한 8개의 Q 표본 선택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표 3].

[표 3] Q 소트 분포의 모양

	비동의		중립			동의	
	-3	-2	-1	0	+1	+2	+3
점수							
카드 수	3	5	6	7	6	5	3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는 37명의 P표본에 대한 수집 자료를 코딩 후 컴퓨터에 입력, 처리하였다. 이때 자료는 1-7점을 이용하여 코드화 하였으며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3)에 1점을 부과하고, ‘그저 그렇다’하는 중립(0)은 4점,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3)은 7점으로 점수부여 후 코딩과 컴

퓨터 입력을 하였다. 입력자료에 대한 결과산출은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간호학생의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주 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한 결과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형을 대표하는 대상자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적합한 문항선정을 통해 그 유형의 특성과 다른 유형과의 차이파악을 하기위해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분만실습을 처음으로 경험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의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주관성 구조는 3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각 유형의 대상자 집단은 분만실습에 대한 비슷한 의견을 가진 대상자들끼리 묶여지므로 각 유형은 그 유형만의 특성을 설명하게 된다.

전체 연구대상자 37명 중 제 1유형에 속한 사람은 20명, 제 2유형은 6명, 제 3유형은 11명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이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가 1.0 이상으로 높은 사람은 제 1유형이 10명, 제 2유형이 2명, 제 3유형이 4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면담내용과 Q 분류과정에서 이들이 기술한 양 극단의 진술문 선택이유를 참고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과 차이파악을 위해 각 유형별로 35개의 진술문 중 강한 동의를 보이는 항목(표준점수 +1.0 이상)과 강한 비동의를 보이는 항목(표준점수 -1.0 이하)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참고적으로 각 유형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각 유형별로 다른 유형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변량도는 50.94%로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40.16%, 제 2유형이 6.77%, 제 3유형이 4.02% 표 4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표 4] 유형별 아이겐값과 변량

	제 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아이겐 값	14.8576	2.5048	1.4865
변 량	.4016	.0677	.0402
누적 변량	.4016	.4693	.5094

[표 5] 각 요인간 상관관계 계수

	제 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 1유형	1.000		
제2유형	.259	1.000	
제3유형	.746	.227	1.000

3.1 제 1 유형: 산모 공감형

제 1유형은 총 37명의 대상자 중 20명이 속하였다. 이들은 산모가 비록 분만이라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난 아기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행복해지는 산모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엄마됨에 대한 산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산모 공감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산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낳아주신 엄마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분만은 소중한 생명을 얻는 가치있는 경이로운 과정이므로 산부의 자세나 회음절개 장면에 대해 수치스러움이나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산부는 환자 이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유형에서 나타난 동의정도를 살펴보면 높은 동의문항(표준점수 > 1)이 10개, 높은 비동의 문항(표준점수 < 1)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유형이 강하게 긍정하는 문항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나를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고 고맙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엄마의 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산모는 가장 행복해 보인다’,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올 뻔 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쁘고 귀엽다’, ‘출산의 순간은 경이롭다’, ‘출산은 고통이 따르지만 아름답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아름다워 눈물 날 뻔했다’, ‘분만은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 순이었다.

강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진술문은 ‘산부는 단지 처치의 대상일 뿐이다’, ‘출산자세가 수치스럽다’, ‘회음절개 장면이 끔찍하여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 ‘출산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산부는 환자가 아니다’, ‘산부 내진 시 눈을 어디에 뒤편할 지 모르겠다’, ‘의료진은 산부의 정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순이었다.

관찰 및 면담내용 중 인자가중치가 높은 구성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유형을 가장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29번 대상자의 경우(인자가중치 1.8711) 분만은 힘든 고통의 과정인 만큼 가족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히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유는 친정어머니의 경우 분만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딸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

감할 수 있는 입장이며, 남편의 경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힘들었던 아내를 더 챙겨줄 수 있으므로 아내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의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학생의 간접경험과 가족의 간접경험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4번 대상자의 경우(인자가중치 1.4394) 분만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이겨낸 후 태어난 아기를 안으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입가에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하는 산모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도 그러했을 거라는 생각에 감사한다는 입장이다.

16번 대상자의 경우(인자가중치 1.2920) 출산은 극한의 고통이라 할 만큼 힘든 과정인 것 같고, 그 고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으나 본인도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번과 16번 대상자의 관심 간호영역을 살펴보면 여성간호와 아동간호라는 점에서 자신의 관심영역 또한 분만에 대한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송미승[15]의 연구에서 초산부들이 출산 전에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출산 후에는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성취감과 모성으로서의 정체감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김현경[1]의 연구와 같은 결과임을 볼 수 있다.

한편 초산모 배우자들의 분만참여에 대한 김예진[16]의 연구에서는 출산을 간접 체험한 배우자들도 산부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음을 보고했는데 이는 분만과정에 직접 참여한 산부나 간접경험을 한 배우자의 입장이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식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혜숙[17]의 주관성 연구에서는 분만 시 통증을 직접 체험한 1유형(모성정체성 지각형), 2유형(성숙 도약형), 3유형(자극심 체험형) 산모들은 분만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분만통통을 경험하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 산모로만 구성된 4유형(모성전환 결여형)에서는 오히려 분만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 분만통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분만에 함께 참여한 배우자들 역시 생명체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거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자신의 자녀를 낳아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고 한 김예진[16]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의 제1유형인 ‘산모 공감형’ 반응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만 간접 체험 연구인 고명숙[11], 여정희[12]와 조정호[13]의 질적 연구 결

과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측면은 본 연구 결과와 대동소이하나, 이들은 회음 절개술이나 통증, 분만자세, 내진 등의 의료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혐오감이나 공포감, 무력감, 충격, 수치심 등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 1유형의 대상자들은 분만통증은 물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회음절개나 출산자세 등 분만 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인위적 처치까지도 분만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분만과정을 관찰하면서 의료진의 처치나 시술보다는 오히려 산부의 정서적인 측면에 더 가치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과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분만과정을 배운 후 실습을 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불어 학생들이 산모와 공감할 수 있는 태도는 대상자 중심으로 간호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본다. 이는 간호가 대상자 중심으로 행해지려면 대상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이 우선되어야 그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제 1 유형(산모공감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 진술문	표준점수
2. 나를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고 고맙다.	1.61
29.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1.44
25. 엄마의 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37
18.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산모는 가장 행복해 보인다.	1.34
3.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올 뻔 했다.	1.23
14. 갓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쁘고 귀엽다.	1.16
9. 출산의 순간은 경이롭다.	1.10
15. 출산은 고통이 따르지만 아름답다.	1.08
35.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아름다워 눈물 날 뻔 했다.	1.07
1. 분만은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	1.02
4. 의료진은 산부의 정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1.10
34. 산모 내진 시 눈을 어디에 뒤편할 지 모르겠다.	-1.23
6. 출산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산모는 환자가 아니다.	-1.23
13. 회음절개 장면이 끔찍하여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	-1.32
26. 출산자세는 수치스러울 것 같다.	-1.44
8. 산모는 단지 처치의 대상일 뿐이다.	-1.89

3.2 제 2유형: 돌봄 요구형

제 2유형은 37명의 대상자 중 6명으로 출산이라는 것은 질병을 가진 환자가 아닌 자연스런 과정으로서 산부와 아기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존중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진은 진정으로 산부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 속에서 분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돌봄 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의료진의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그리고 처치를 빨리 끝내려 하는 행위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2유형에서 나타난 동의정도를 살펴보면 높은 동의문항(표준점수 > 1)이 5개, 높은 비동의 문항(표준점수 < 1)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유형이 강하게 긍정하는 문항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산부를 배려하는 분만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기는 의료진에 의해 끌려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의료진은 분만을 빨리 끝내려는 느낌이 든다’, ‘출산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산부는 환자가 아니다’, ‘산부를 다그치는 의료진의 태도가 불쾌하다’ 이었다. 강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진술문은 ‘산부는 단지 처치의 대상일 뿐이다’, ‘회음절개 장면이 끔찍하여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 ‘회음절개 중 가위질 소리가 쟁쟁하다’, ‘산부 내진 시 눈을 어디에 뒤편할 지 모르겠다’, ‘애 낳기가 무섭다’, ‘출산자세가 수치스럽다’ 순이었다.

관찰 및 면담내용 중 인자가중치가 높은 구성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유형을 가장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35번 대상자의 경우(인자가중치 1.3147) 분만과정은 힘든 고통의 과정이지만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고통은 당연히 감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임신과 분만은 병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이므로 수술보다는 자연분만이 당연하며 이러한 경이로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35번 대상자의 간호관심 영역이 여성간호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사료된다.

37번 대상자의 경우(인자가중치 1.1070) 분만과정에서 이론과 다소 차이가 있음에 놀랐으며 탈진으로 인해 협조가 어려운 산모를 다그치고 짜증을 내는 의료진의 태도에 산모가 불쌍하고 안쓰럽기 까지 하여 분만실의 환경개선과 의료진의 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제 2유형의 학생들은 분만실의 의료화 된 현출산문화에 대해 냉철하게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산부에게 의료인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실습에 임한 대상자들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분만현장에서 의료인들의 산부에 대한 접근

이 너무 의료중심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며 인간적인 배려가 다소 부족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한국여성 민우회 주최로 이루어진 출산의료 서비스에 관한 토론회에서 하정옥[18]은 한국 사회에서의 산부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정받기는커녕,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부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환자”로서 그리고 성별위계 속에서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여성”으로 취급당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개입으로 인한 ‘의료화 된 자연분만’이라는 문제점들이 여러 학자들[19-23]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한국여성건강증진연구회[19]에 의하면 출산경험에 대한 대상자의 사례를 볼 때 산부들은 33%에서 ‘의학적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학적 조치가 없더라도 충분히 출산할 수 있음을 보고한 사례도 있어 실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적 조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ristiane Northrup[20]에 의하면 여성의 몸은 본능적으로 출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현대화된 의료기술에 의해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본능적인 자신의 힘을 잃게 되어 의료적인 처치에 의존하도록 길들여짐을 말하였다. 더불어 Michel Odent[21]도 출산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오로지 생명의 자연스런 움직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현 시점의 의료진 중심으로 행해지는 출산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만 시 산부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산부에 대한 사랑과 배려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문일[22, 23]도 분만실에서의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의료접근인 촉진제와 전자 감시장치, 고정된 산부 자세, 진통제 및 마취제 사용, 내진, 회음절개술, 인공파막술 등의 인위적인 접근 방법이 오히려 출산을 방해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높인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바람직한 출산문화를 위해서는 산부관점에서 “능동적인 출산(active birth)”을, 의료진의 관점에서는 생명이 존중되는 “부드러운 출산(gentle birth)”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자[24]는 산부들이 분만통증에 대한 인위적인 조절을 싫어함과 더불어 분만 중에 의료인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음을 보고하면서 산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분만 시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더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미라와 조정호[25]에 의하면 분만통증이 산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산부가 통증의 의미를 깨달을 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경산모를 대

으로 한 여정희[26]와 김영희[27]의 연구에서도 경산모들도 분만통증을 초산모와 같이 고통스럽게 지각하지만 초산 때의 경험으로 통증의 이유를 아이를 낳기 위한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여 통증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자에게 통증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이경숙[28]의 수술분만 후 자연분만 한 산모 경험에서도 일치되는 견해를 볼 수 있다. 즉, 대상자들은 의료중심적인 출산환경에서 수술분만을 한 후 의사가 또 반복 수술을 권함에도 불구하고 순리적으로 출산을 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자연분만을 하게 되나 분만과정 중 극심한 아픔에 수술의 유혹을 느끼지만 내 집 같은 출산환경과 초산사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자연분만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부들은 통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며 의료진의 정성어린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고 있다.

박문일[22]은 분만은 산부가 무의식적인 힘이 솟아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산부가 출산의 핵심적인 주도자임을 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산부가 잘 분만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조산자로서의 의사의 역할에 대한 자리매김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학생들은 분만 관찰 경험을 하면서 의료진들이 산부보다 앞서서 모든 분만과정을 주도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임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제 2 유형(돌봄 요구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 진술문	표준점수
7. 산모를 배려하는 분만이 절실하다.	1.81
19. 아기는 의료진에 의해 끌려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1.51
20. 의료진은 분만을 빨리 끝내려는 느낌이 든다.	1.34
6. 출산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산모는 환자가 아니다.	1.21
5. 산모를 다그치는 의료진의 태도가 불쾌하다.	1.06
26. 출산자세는 수치스러울 것 같다.	-1.05
11. 애 낳기가 무섭다.	-1.37
34. 산모 내진 시 눈을 어디에 뒤편할 지 모르겠다.	-1.66
21. 회음절개 중 가위질 소리는 아직도 귀에 선하다.	-1.78
13. 회음절개 장면이 끔찍하여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	-1.95
8. 산모는 단지 처치의 대상일 뿐이다.	-1.9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유형인 “돌봄 요구형” 학생들의 시각 또한 위의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은 1유형의 간호학생들이 산모의 정서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분만과정을 관찰하였다면 2유형의 간호학생들은 의료인들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될 것인지에 입각하여 관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유형의 간호학생들은 보다 더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하기 위한 의료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예비 간호사로써 분만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순리에 의해 자연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사중심이 아닌 산부중심의 분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3 제 3유형: 미래 분만 유추형

제 3유형은 37명의 대상자 중 11명으로 이들은 분만이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며 산모가 진통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견뎌내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주체로서 여성의 위대함이 느껴진다고 한다. 비록 관찰이라는 간접 경험을 했지만 이는 미래에 자신의 분만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입장에서 ‘미래 분만 유추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으로 행해져온 틀에 박힌 산모처치나 분만과정을 수치스럽거나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3유형에서 나타난 동의정도를 살펴보면 높은 동의문항(표준점수 > 1)이 7개, 높은 비동의 문항(표준점수 < 1)이 7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3유형이 강하게 긍정하는 문항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성의 위대함이 느껴진다’, ‘나를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고 고맙다’, ‘분만에 대한 간접 경험은 미래의 나의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진통실에 혼자 있는 산부는 외로워 보인다’, ‘분만은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 ‘여자로서 좋은 간접 경험이다’, ‘엄마의 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순이었다.

강하게 부정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산부 내진 시 눈을 어디에 뒤편할 지 모르겠다’, ‘산부는 단지 처치의 대상일 뿐이다’, ‘무표정하고 틀에 박힌 시술에 화가 난다’, ‘회음절개 장면이 끔찍하여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 ‘출산자세가 수치스럽다’, ‘아기는 의료진에 의해 끌려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엄마와 아기를 떼어놓는 것이 실망스럽다’ 순이었다.

3유형을 가장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2번 대상자의 경우(인자가중치 1.7102) 분만의 고통을 경험하는 산모를 볼 때 마음이 아팠고 그것을 참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 각 단계마

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산부에게는 어떻게 간호접근을 해야 할 지를 배우는 계기가 되어서 미래에 분만을 하거나 간호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번 대상자의 경우(인자가중치 1.6170) 또한 분만은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쓰는 광경을 보며 자신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놀라웠고 이러한 경험은 후에 자신이 분만할 때 좀 더 대처를 잘 할 수 있으며 산부 간호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3번 대상자의 경우(인자가중치 1.3651) 분만실습을 통해 비록 간접 체험이지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고 전반적인 관찰경험이지만 간호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3번과 10번 대상자의 간호 관심 영역이 여성간호인 것으로 나타나 실습을 통해 분만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태도와 관심 영역 간에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 3유형 학생들은 산부가 혼자 외로워하면서 힘든 분만과정을 견뎌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면서 여성의 위대함을 느끼고 더불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고맙고 엄마의 맘을 느끼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간호학생들은 산부 혼자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보며 이때 산부에 대한 간호요구가 절실함을 느낀다.

손승애[29]는 출산 후 첫 어머니 뱃의 체험을 첫째, 참자아를 찾아가는 정체성 재확립의 체험, 둘째, 창조적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자긍심과 완성감, 셋째, 성숙한 인간되어감, 넷째, 관계맺음의 재인식을 통해 사회적 조직망을 재구축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여 출산을 통해 여성이 성숙 되어가며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산부들은 숭통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었지만 그 고통을 견뎌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대견함에 스스로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이런 출산과정을 거쳐 진짜 여성으로 한 단계 성숙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다.

김영희[27]도 출산경험 자체가 모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도약하게 되는 중요한 발전적 갈림길이 되어 ‘자기 찾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출산은 여성에게 발달위기가 됨을 말해주고 있다. 김현경[1]에 의하면 산부들이 생명에 대한 경외와 생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 간호학생들도 분만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소중함과 더불어 엄마에게 고마움을 갖게 되어 근본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직접 출산과정을 봄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명숙[11], 여정희[12]와 조정호[13]의 질적 연구들에서 분만관찰 경험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만통증으로 인해 분만에 대한 거부감, 적나라한 분만장면에 대해 민망함과 혐오감, 회음절개에 대한 끔찍함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간호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분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 볼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분만과정상에 발생하는 통증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미 알고 이해함과 동시에 출산 후에 느끼는 성취감과 정체감 및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해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여정희와 백설향[30]의 분만 중 산부들의 간호요구도 분석 결과 중 심리적 요구로 지지, 동석과 대화, 안정된 환경, 안심으로 분류하여 산부들이 어려움 중에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돌봐줄 수 있는 대상자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산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게 되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 분만과정에 문제가 발생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심리적 지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분만실 환경은 산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한국 여성건강증진연구회[19]는 보고하고 있어 심리적 지지간호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게 한다.

[표 8] 제 3 유형(미래분만 유추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 진술문	표준점수
28. 여성의 위대함이 느껴진다.	1.58
2. 나를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고 고맙다.	1.47
24. 분만에 대한 간접경험은 미래의 나의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42
33. 진통실에 있는 산모는 외로워 보인다.	1.38
1. 분만은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	1.27
16. 여자로서 좋은 간접경험이다.	1.16
25. 엄마의 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01
23. 엄마와 아기를 떼어놓는 것에 실망이다.	-1.24
19. 아기는 의료진에 의해 끌려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1.26
26. 출산자세는 수치스러울 것 같다.	-1.40
13. 회음절개 장면이 끔찍하여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	-1.50
30. 무표정하고 틀에 박힌 시술에 화가 난다.	-1.65
8. 산모는 단지 처치의 대상일 뿐이다.	-1.71
34. 산모 내진 시 눈을 어디에 뒤편할 지 모르겠다.	-1.94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분만간접 체험에 대한 3가지 유형 중 1유형(산모 공감형)은 산부의 맘을 함께 나눠 볼 수 있는 정서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었으며 2유형(돌봄 요구형)은 의료인이 분만과정 중 산부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3유형(미래 분만 유추형)은 산부의 분만경험을 보면서 똑같은 여성으로서 미래에 겪을 분만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분만실 실습을 소화해 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유형 중 2유형은 병원에서의 출산문화가 의료인 중심에서 산부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의료접근에 대한 방향제시로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본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분만관찰 경험을 통해 분만에 대한 그들의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의 분만관찰 경험에 대한 주관성 유형은 ‘산모 공감형’, ‘돌봄 요구형’, ‘미래 분만 유추형’등 3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1유형인 ‘산모 공감형’은 분만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난 아기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행복해지는 산모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엄마됨에 대한 산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나를 낳아주신 엄마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며 분만은 소중한 생명을 얻기까지 참아내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경이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예비간호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분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간호학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2유형인 ‘돌봄 요구형’의 경우 출산은 환자가 아닌 자연스런 과정으로서 산부와 아기의 인격은 절대적으로 존중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의료진은 진정으로 산부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 속에서 분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유형이다. 또한 이들은 의료진의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그리고 처치를 빨리 끝내려 하는 행위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제 3유형인 ‘미래 분만 유추형’의 경우 분만과정은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며 산부가 진통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견뎌내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주체로서 여성의 위대함이 느껴진다고 한다. 이들은 비록 관찰이라는 간접 경험을 했지만 이는 미래에 자신의 분만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학생들이 분만현장에서 출산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갖게 되는 분만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으로서, 미래의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의식 확장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래에 이들이 간호현장에서 대상자를 좀 더 이해하고, 대상자 입장에서 성심껏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의 내재화를 통해 본인의 분만경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분만에 대해 경험하는 유형을 분석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인식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간호학생들의 간호에 대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대상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김현경, “초산모의 출산경험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2] Celeste R. Phillips, "Family-Centered Maternity and Newborn Care", 4th edition, Mosby, 1996.
- [3] Reeder, Martin, Koniak-Griffin, "Maternity nursing", 15th ed, Philadelphia · New York : Lippincott, 1997.
- [4] 천성문, 박원모, 이영순, 조장식,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또래관계,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 9권 4호, 8월, pp.1901-1912, 2007.
- [5] Bobak, Lowdermilk, Jensen, "Maternity nursing", 4th ed, St.Louis : Mosby, 1995.
- [6] Francine H. Nichols, Sharron Smith, Humenick, "Childbirth Education : Practice, Research, and Theory", Philadelphia : Saunders Company, 1988.
- [7] 김희숙, “출산여성의 일반분만과 선택분만에 따른 출산경험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8] 윤미선, 조주연, “간호대학생의 분만실 실습기관별 간호수행경험과 간호수행 자신감”,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 12권 2호, 4월, pp. 909-921, 2010.
- [9] 김연아, 최소영, “결혼 이민 여성의 자가간호지식과 신생아 양육지식정도”,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1권 4호(B), 8월, pp.1883-1894, 2009.
- [10] 안혜경,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8권 6호, 12월, pp.2249-2263, 2006.
- [11] 고명숙, “간호학생의 분만관찰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27권 4호, pp. 892-900, 1997.
- [12] 여정희, “간호학 전공 여대생이 인지한 분만의 의미에 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7권 2호, pp. 203-211, 2001.
- [13] 조정호, “모성간호 실습 후 분만과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심리적 반응 고찰”, 모자간호학회지, 제4권 1호, pp. 41-51, 1994.
- [14] 김홍규,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15] 송미승, “초산모의 질분만경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16] 김예진, “초산모 배우자의 분만참여에 관한 체험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17] 신혜숙, “분만경험에 대한 주관성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2호, pp. 307-318, 2000.
- [18] 하정옥, “한국의 출산 의료화의 현실 : 여성-산모-환자로서의 출산경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병원 모델링을 위한 열린 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 2001.
- [19] 한국여성건강증진연구회, “여성건강”, 서울 : 현문사, 2002.
- [20] Christiane Northrup. Women's Bodies, Women's Wisdom. 1998, 강현주 옮김,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서울 : 한문화멀티미디어, 2001.
- [21] Michel Odent, "The Scientification of Love", 1999, 장은주 역, “출산 속에 숨겨진 사랑의 과학”, 서울 : 명진, 2001.
- [22] 박문일, “출산혁명”, 서울, 2000.
- [23] 박문일, “Gentle birth 와 active birth의 개념”, Seminar Gentle Birth 2001, 대한태교연구회, 2001.
- [24] 김명자, “산부의 분만대기중 간호요구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25] 이미라, 조정호, “분만통통의 의미”, 대한간호학회지, 제 21권1호, pp. 41-49, 1991.
- [26] 여정희, “경산모의 분만통증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5권3호, pp. 277-286, 1999.
- [27] 김영희,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과정 경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28] 이경숙, “수술분만 후 자연분만한 산모의 체험-조산원 분만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29] 손승아, “첫 어머니 됨의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30] 여정희, 백설향, “분만통증 관련 간호요구에 대한 내용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 7권 4호, pp.499-507, 2001.

이 경 숙(Kyung Sook Lee)

[정회원]



- 1979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76년 3월 ~ 1979년 3월 : 순천전문학교 간호과 교수
- 1979년 6월 ~ 2006년 2월 : 청주과학대학 간호과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충주대학교 간호학과교수

<관심분야>

여성간호, 호스피스

오 진 환(Jin Hwan Oh)

[정회원]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2010년 현재 : 주성대학 응급구조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모성간호, 기본간호, 응급간호